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매개효과 연구

설염추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Differentiation and Learned Helplessness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y

Yanqiu Xue
chungnam national uni. the Department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가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 학습된 무기력, 양육 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193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는 양육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 스트레스는 학습된 무기력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는 문화적 차이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양육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influence of self-differentiation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ir learned helplessness. The study deter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ollowing variables: self-differentiation, learned helplessness, and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study was conducted on mothers who are raisi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193 cases of supplementary data were finally analyzed. The data derived from the survey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3.0 and AMOS 23.0 program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self-differentiation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showed a negative effect on parenting stress and the mothers' learned helplessness, while parenting stre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mothers' learned helplessness. Parenting stress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differentiation and the learned helplessness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may decrease parenting stresses and learned helplessness by increasing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in the context of cultural differences and adapting to new societies.

Key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Mother, Self-Differentiation, Learned Helplessness, Parenting Stress

*Corresponding Author : Yanqiu Xue(Global DualDegree, Woosong university)

email: yanqiu_79@naver.com

Received July 8, 2019

Accepted September 6, 2019

Revised July 30, 2019

Published September 30, 2019

1. 서론

한국사회는 글로벌화에 따른 여러 문화의 공존이 가능한 변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들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 및 지원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들어선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주민 수는 최초 조사연도인 2006년 536,627명에서 2019년 약 240만명으로 약 4.5배가 증가 하였다. 그중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222,455명으로 만 6세 이하가 51.7% (115,085명), 만 7~12세가 36.8% (81,826명)을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1].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하며 한국으로 들어온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집단 사회적 통념 안에서 자녀양육 문제 및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문화 차이로 인한 부적응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2]. 이와 관련하여 결혼생활에서 오는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정 및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는데, 다문화 가정의 양육자는 사회에서의 문제와 고향에 있는 가정문제를 미해결 과제로 남겨 둔 채 결혼을 통하여 가부장적인 태도와 집단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생활방식과 충돌하면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3].

특히 한국의 육아문화인 자녀를 위한 희생과 더불어 잘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혹은 부담감이 원인이 되어 얼마든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출산 및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요구되는 부모의 책임감과 노력은 한국의 전통적 유교 문화와 연관되어 시대를 불문하고 전과 같이 부모들의 주요 과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4].

물론, 점차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녀에 관한 일이라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녀를 흡사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이고, 오래된 관습들은 부모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에 충분하다[5]. 특히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에게 더욱 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즉,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다문화 가정의 양육자들이 나름의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문화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함께 자녀를 키우면서 가중되는 양육 스트레스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감내하고 살아갈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 다[6].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수성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는 변화되는 현 시대가 양성평등 정착에 대해 논할지라도 자녀양육은 한국 사회에서 고스란히 어머니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다[7].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해 가장 연관성이 높은 개인적 변인으로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자아분화를 지목하였다.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개인과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각각의 상황에서 의존적 혹은 충동적이기 쉬우며, 다른 사람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되어 역기능적 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다[8].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아분화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자아분화가 되었다는 것은 이성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주체성을 드러낼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외부세계를 받아들일 때도 자신의 감정, 생각과 행위의 통제권을 스스로 잡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9].

문화와 삶의 환경의 변화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 특히, 다문화 가정과 같은 특수한 가족체계의 양육자인 어머니의 경우, 언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소통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이나 반응이 미래에 자신에게 닥쳐올 부정적 상황을 바꾸는 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믿음이 형성되어 변화를 이루려는 모든 노력을 그만두고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된다. 즉, 학습된 무기력은 자신의 부정적 상황을 억제하려는 노력 자체를 단념하는 현상으로 적응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와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가 학습된 무기력 상태라고 할 수 있다[10]. 임원선(2008)[11]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아 겪고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갈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이 향상을 제안하였으며, 오옥선(2014)[12]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무기력, 소외감,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에서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경우가 적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자신감의 저하와 소극적인 반응으로 환경의 개선보다는 현실에 순응하고 익숙해지려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13].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경우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가 되면,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이 가중되고, 한국사회의 부적응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 중, 환경에서 개인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경험으로부터 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중요하다[14]. 이때 인간은 환경의 요소 중 가정환경에서 형성되는 사회화 과정인 가족 구성

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적 성숙을 이루어 가는 자아분화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자아분화는 가족자아에서 자신을 분리 및 독립시켜 정체감을 이루고 정서와 사고를 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원가족으로부터 개별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15]. 이렇듯 자아분화가 잘 된 어머니의 경우 주어진 상황에 맞게 대응하며 삶에서의 의식적 통제가 가능하고 단일한 대처 방식과 낮은 자아 개념, 낮은 삶의 만족도 등 가정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 행동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16]. 이러한 자아분화는 가족 안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인데 그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특히 부모의 양육 태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상관이 높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17].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가 학습된 무기력과 양육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분석을 통해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학습된 무기력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자아분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며, 더 나아가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건강한 정서 및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양육에 참여하여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역할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연구가 될 것을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 가정 어머니

다문화 가정이란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으로 지칭하고 있으며[18], 또한 다문화 가정을 한 가정 내 여러 형태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19]. 최근 다문화 가족의 개념은 이주민가족(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을 포함해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은 이주여성과 한국남성 결혼을 통해 이루는 가족만 한정한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 대부분이 문화적 차이 및 한국어 구사의 미숙함으로 자녀에게 언어와 사회성 습득의 기회, 기초생활습관교육 등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으므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일반가정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다[21]. 가족 내 이중문화 및 언어 등으로 인해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22].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문화 갈등 문제 및 적응 과정에서의 우울, 스트레스, 가출, 자살기도 등의 부정적인 문제와 함께 폭력문제, 인권침해문제로 확대되었고[23], 이러한 문제들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가출, 이혼율 급증에 따라 친정국가로 귀국 등 가정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서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학습된 무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에 대한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학습된 무기력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2.2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Bowen(1976)의 가족체계이론[8]의 주요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서와 사고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및 정서적 성숙을 포함해 자신이 태어난 가정으로부터의 개별화된 정도를 뜻한다[9]. 분화라는 것은 자신이 독립적인 개체임을 인식하여, 자신만의 자아정체감과 주체성을 확립시켜서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며, Bowen의 이론에서 치료의 목적임과 동시에 성장의 목표가 될 수 있다[24].

자아분화는 개인의 대인관계적 차원과 심리내적 차원을 포함하는 2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관계적 차원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분리하여 사고 및 행위가 가능한가를 의미하고, 심리내적 차원은 정서적 기능과 지적 기능의 분화 정도를 뜻한다[25]. 그러므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서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희망이나 기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자신의 느낌과 생각대로 행위하되, 다른 사람의 기준과 가치도 순수하게 존중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26]. 자아분화 능력이 높은 사람다면 자신의 정서를 이성적으로 조절 및 통제가 가능하며,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또한, 자신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27]. 자아분화의 개념은 자아분화가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특징인 정서조절능력, 통제력, 주체성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28].

자아분화의 개념을 단순한 명제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자아분화가 대인관계적 차원과 심리내적 차원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자, 더 나아가 개인의 성숙 및 독립된 개체로 가는 장기적 과정으로서의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자아분화라 함은, 대인관계적으로는 자신이 태어난 원가족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 독립된 개체가 되었음은 물론 중요한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객관성 및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 교류와 긴밀한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심리적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정서와 사고를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감정에 의해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정서적으로 성숙한 심리 상태를 뜻한다.

2.3 학습된 무기력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수없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인간의 행위가 그 결과를 제어할 수 없는 경우에 인간은 내부 반응과 결과가 무관하여 스스로 어쩔 수 없다는 비수반성 인지(noncoincidence)가 이루어지면서 무기력이 발생하게 된다[29]. 이와 같이 학습된 무기력은 인간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혐오 자극인 결과가 주어졌을 때 무기력이 발현하는 것이다[30].

학습된 무기력의 주요 특성으로는 기대 및 행동을 쉽게 포기하는 인내성 부족, 과제 또는 학습 수행능력의 저하, 우울과 부정적 인지, 공격성 감소, 문제해결 방식의 효율성 저하, 수동성 강화 등과 같이 인간 심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 등으로 나열할 수 있다[31].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은 반복된 실패경험 또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되는 경우, 자기 통제성이 결여되는 경우, 지나치게 신경질적이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한 경우, 호르몬의 일종인 노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제어하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조절 및 통제가 잘되지 않은 경우, 학교요인·가정요인과 같은 외부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32].

이와 같은 학습된 무기력은 한 개인의 행동이 어떤 사건의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위기 상황과 우울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33]. 또한, 학습된 무기력은 긍정적인 결과와 연관되는 행동을 감소시키고 외부와의 반응을 감소시키며[32], 그 결과 부정적 자아상을 형성한다[34].

2.4 양육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전달되는 많은 내·외적 요구에 맞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육체적, 정신적 긴장상태를 의미한다[35]. 즉, 단순히 스트레스 사건의 중요성보다는 그 사건에 대해 개인이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가에 따라 개인의 스트레스 강도가 다르게 지각된다는 것이다[36].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 모두의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보다 육아 스트레스에 더 쉽게 노출된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관련 특성으로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과 자녀가 가진 특성, 그 외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3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양육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하였다[37].

어머니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고, 자녀의 짜증과 고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그들의 생존과 안전 등 대부분을 담당해 내야 하고, 그에 따른 집안일과 개인 시간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항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38]. 그리고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균형적 발달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정신적 건강상태 및 자녀에 관한 시선과 태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자아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괴감, 불안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한다[39].

가족 내 자녀의 존재는 부모에게 사회적 책임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삶의 국면에서 오는 행복과 환희를 느끼게 하는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스트레스를 필연적으로 겪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양육 스트레스란, 대부분의 선행연구자들이 정의한 것과 같이 자녀의 출생으로부터 오는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타인양육에 관한 죄책감과 부모역할에서의 부담감을 모두 포함하여 자녀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모든 어려움을 뜻한다[36].

2.5 선행연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분화 수준이 양육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융통성 및 독립성을 지니고 다양한

갈등상황 및 스트레스를 겪으면서도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40-41]. 즉,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심리적, 관계적인 자원을 형성하게 되어 이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자아분화와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가 부(-)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반면, 자아분화가 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개인의 감정에 예민하며, 융통성이 없고, 감정적이며,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또한 미분화된 가족자아의 상태로 감정이 혼란스러워 자율적인 정체감을 갖지 못한다[13].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일수록 무기력에 빠지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아분화의 하위요인과 학습된 무기력의 하위요인 가운데 상당 부분에서 공통된 요인들이 나타난다[14]. 정서적 체계와 지적체계가 구분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현실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는 문제해결의 본질을 피하기 위한 회피와 대처 전략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이는 자기 통제성 부족으로 이어져 무기력에 쉽게 빠지게 된다[9].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지만,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하위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볼 때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의 경우 학습된 무기력은 낮고 자아분화가 낮은 경우 학습된 무기력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즉, 자아분화는 학습된 무기력과 부(-)적이 관계를 의미한다.

양육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학습된 무기력의 우울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쳤고[42],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우울은 낮아지고, 어머니가 적대적이고 비합리적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43].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학습된 무기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고[44], 이러한 양육태도가 결국에는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45]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 스트레스는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 간의 관계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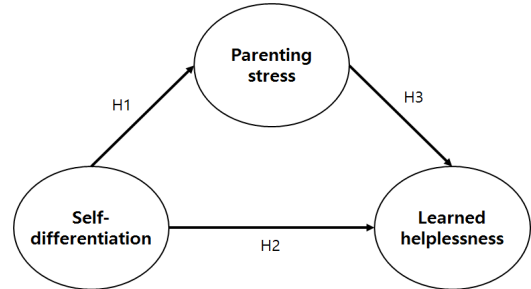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 양육스트레스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인 김옥희(2018)[46], 정재원 외(2019)[47], 이윤희(2011)[48], 홍원표(2013)[49]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는 양육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는 학습된 무기력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학습된 무기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양육자인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경기지역을 포함한 전국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예비설문을 실시하여, 자아분화가 낮고,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평균보다 낮은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210부를 배부하여 202(96.2%)부가 회수되었고, 본 연구에 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9부를 제외한 193(91.9%)부를 바탕으로 최종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법으로 자기기입식 방법을 채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3.0과 AMOS 23.0 통

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3.3 측정도구

3.3.1 자아분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분화 변수는 조은경과 정혜정(2007)이 Bowen의 가족체계이론 토대로 개발한 한국어판 자아분화 척도이다[50]. 도구는 총 38개 항목으로 자기입장(8문항)과 정서적 반응(9문항), 정서적 단절(5문항)과 다른 사람과의 통합(7문항) 그리고 정서적 융합(9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자기입장 및 정서적 반응은 심리내적 차원, 다른 사람과의 통합과 정서적 단절은 대인 관계적 차원, 정서적 융합은 대인 관계적 차원과 심리내적 차원이 통합된 하위요인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6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6점 '매우 그렇다'까지 부여하며, 부정적 내용의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아분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 결과, 자아분화 전체의 Cronbach's $\alpha=0.939$, 하위요인인 정서적 반응의 Cronbach's $\alpha=0.885$, 자기입장의 Cronbach's $\alpha=0.858$, 타인과 통합의 Cronbach's $\alpha=0.852$, 정서적 단절의 Cronbach's $\alpha=0.758$, 정서적 융합의 Cronbach's $\alpha=0.898$ 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다.

3.3.2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은 Seligman과 Maier(1976)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51]에 근거하여 신기명(1990)의 연구[52]에서 사용한 천보경(2015)의 측정도구[10]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자신감 결여 10문항, 우울 및 부정적 인지 10문항, 수동성 5문항과 통제력 결여 5문항, 지속성 결여 5문항과 과시욕 결여 5문항, 책임성 결여 5문항이며, 총 4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부여하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학습된 무기력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 결과, 학습된 무기력 전체의 Cronbach's $\alpha=0.968$, 하위요인인 자신감 결여의 Cronbach's $\alpha=0.930$, 우울 및 부정적 인지의 Cronbach's $\alpha=0.948$, 수동성의 Cronbach's $\alpha=0.885$, 통제력 결여의 Cronbach's $\alpha=0.747$, 지속성 결여의 Cronbach's $\alpha=0.812$, 과시욕 결여의 Cronbach's $\alpha=0.808$, 책임성 결여의 Cronbach's $\alpha=0.733$ 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다.

3.3.3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척도로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53]를 수정한 신속재(1997)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54]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하미정(2008)의 도구[55]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하위요인으로 자녀의 기질에 대한 스트레스 8문항,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9문항, 학습기대에 대한 스트레스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부여하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학습된 무기력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 결과, 양육 스트레스 전체의 Cronbach's $\alpha=0.874$, 하위요인인 자녀의 기질관련 스트레스의 Cronbach's $\alpha=0.867$,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스의 Cronbach's $\alpha=0.741$,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의 Cronbach's $\alpha=0.619$ 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다.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다문화 가정 양육자인 어머니의 연령으로는 40대이하 51.3%(99명), 40대 45.1%(87명), 50대 3.6%(7명)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수로는 1명이 23.3%(45명), 2명 51.8%(100명), 3명 22.8%(44명), 4명 1.6%(3명), 5명 0.5%(1명)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이 81.9%(158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12.4%(24명), 필리핀 2.1%(4명), 일본 1.6%(3명), 러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태국이 각각 0.5%(1명)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결혼 년도에 대해서는 1999년 이하가 1.6%(3명), 2000년-2005년 37.3%(72명), 2006년-2010년 58.0%(112명), 2011년-2015년 3.1%(6명)으로 나타났다.

결혼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1점 '아주 나쁘다'는 전체 응답자 중 1.0%(2명), 2점 '나쁘다' 8.8%(17명), 3점 '보통이다' 80.3%(155명), 4점 '좋다' 9.8%(19명)로 나타났으며, 평균 3.41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최종학력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졸업이 1.6%(3명), 중학교 졸업 21.2%(41명), 고등학교 졸업 35.2%(68명), 전문대 졸업 14.5%(28명), 대학중퇴 3.6%(7명), 대학교 졸업 19.2%(37명), 대학원 이상 4.7%(9명)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경제 상태로는 '아주 나쁘다'가 1.0%(2명), '나쁘다' 8.8%(17명), '보통이다' 80.3%(155명), '좋다' 9.8%(19명)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전체 경제 상태는 2.99로 보통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응답

자의 거주지는 대전이 61.1%(11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청도 12.4%(24명), 경기도 9.3%(18명), 부산 6.2%(12명), 서울 4.7%(9명), 전라도 3.6%(7명), 경상도 2.6%(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인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 양육 스트레스, 학습된 무기력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자아분화, 양육 스트레스, 학습된 무기력의 개념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209.800$, $df=71$, $GFI=0.866$, $CFI=0.926$, $AGFI=0.802$, $RMR=0.035$, $IFI=0.926$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또한 <Table 1>과 같이 요인부하량(λ)의 값은 0.618에서 0.851로 나타남으로써 각 요인에 대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였다.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ty	AVE	Cronbach's α
Self-differentiation	→ Emotional response	.779	Fix	-	.891	.674	.864
	→ Integration with others	.850	0.085	12.604***			
	→ Emotional break	.672	0.087	9.546***			
	→ Emotional fusion	.838	0.090	12.403***			
Parenting stress	→ Temperament	.788	Fix	-	.875	.702	.765
	→ Relation	.660	0.082	8.520***			
	→ Learning expectation	.735	0.111	9.428***			
Learned helplessness	→ Lack of confidence	.851	Fix	-	.944	.709	.907
	→ Depressed	.849	0.050	21.871***			
	→ Passivity	.734	0.079	11.790***			
	→ Lack of control	.634	0.060	9.618***			
	→ Lack of continuity	.838	0.065	14.450***			
	→ Lack of lust	.618	0.067	9.323***			
→ Lack of responsibility	.765	0.061	12.550***				

*** $p < .001$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 양육 스트레스, 학습된 무기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 양육 스트레스, 학습된 무기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분화는 양육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에 모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고, 각 변수들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Table 2. Correlation

Variables	Self-differentiation				
	Emotional response	Integration with others	Emotional break	Emotional fusion	
Temperament	-.557**	-.443**	-.383**	-.397**	
Parenting stress	Relation	-.527**	-.379**	-.396**	-.382**
Learning expectation	-.478**	-.407**	-.366**	-.305**	
Lack of confidence	-.607**	-.682**	-.517**	-.629**	
Depressed	-.600**	-.681**	-.480**	-.639**	
Passivity	-.450**	-.610**	-.520**	-.539**	
Learned helplessness	Lack of control	-.545**	-.417**	-.347**	-.402**
Lack of continuity	-.683**	-.642**	-.429**	-.559**	
Lack of lust	-.471**	-.426**	-.297**	-.304**	
Lack of responsibility	-.569**	-.582**	-.406**	-.544**	

** $p < .01$

4.3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206.379$, $df=71$, $GFI=0.873$, $CFI=0.927$, $AGFI=0.812$, $RMR=0.035$, $IFI=0.928$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Table 3>,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는 양육 스트레스($\beta=-.699$, $p < .001$)와 학습된 무기력($\beta=-.673$, $p < .001$)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학습된 무기력에 정(+)의 유의한 영향($\beta=.317$,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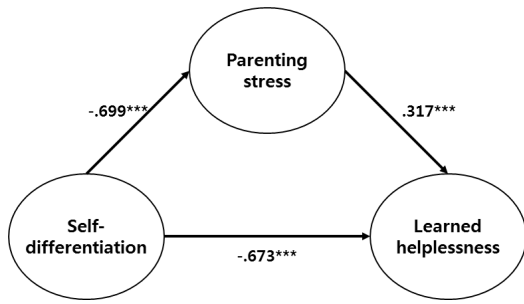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Results

Table 3.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β	S.E.	C.R.	P	Sig.
Self-differentiation	→ Parenting stress	-.699	.069	-7.932***	.000	Sig.
Self-differentiation	→ Learned helplessness	-.673	.086	-7.607***	.000	Sig.
Parenting stress	→ Learned helplessness	.317	.102	3.826***	.000	Sig.

*** $p < .001$

다음 <Table 4>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한 간접효과 분석결과이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간접효과는 $p < .05$ 의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Indirect effect analysis of parenting stress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Self-differentiation	Learned helplessness	-.673	.003	-.221	.001	-.895	.003

*** $p < .001$, ** $p < .01$, * $p < .05$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56]한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매개효과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Sobel-test result of parenting stress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Sobel-test	
		Z-value	P
Self-differentiation	Learned helplessness	-3.446	.000

5. 결론

본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자아분화, 양육 스트레스, 학습된 무기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문화적응과 다양한 양육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개인적 변인인 자아분화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 양육 스트레스, 학습된 무기력은 모두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분화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한 연구[15]와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이 무기력하다고 밝힌 연구[9]와 일치하고,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한 연구결과[43]를 지지한다.

둘째, [H1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는 양육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과 [H2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는 학습된 무기력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검증 결과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H3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학습된 무기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도 가설 검증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은 낮아지고,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학습된 무기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은 양육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통제하고 조절 가능함으로써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인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 선행연구[5, 57]의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H4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도 가설 검증 결과 매개효과가 나타나 가설이 채

택되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인 학습된 무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양육 스트레스라는 매개요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지니는 태도는 결국에는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 [45]이고,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우울감, 자신감 결여와 같은 학습된 무기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힌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학습된 무기력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에는 더욱 양육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어머니는 문화적 차이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환경에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는 양육의 힘든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정서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자아분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지적,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이는 양육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표집대상이 다문화 가정 어머니로 한정하여 전국을 범위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전국적으로 분포비율이 고르지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습된 무기력을 선정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우울감, 자신감 결여, 통제력 결여 등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더 광범위한 지역 분포에 따른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별로 면접법이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추가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를 심리적 측면에서 변수를 사용한 양적 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하지만, 자아분화와 같은 심리적 변인에 대해 질적 연구를 통한 인터뷰 및 조사 내용을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내적상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자아분화를 높일 수 있는 연구대상자의 통찰력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Statistics on foreign residents by local governments [internet]. Seoul: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8 [cited 2018 December 1]. Available from: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sessionid=LJIWKSgvK2l+qM6NGJpFJCri.node5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66841.
- [2] S. H. Kim, Y. K. Noh, "Influence of spous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sense of parenting competence among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24, No.2 pp. 174-184, 2018. DOI: <https://doi.org/10.4069/kjwhn.2018.24.2.174>
- [3] N. H. Kim, I. K. Baek, "The effect of child-rear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of married immigrant women on their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and social and peer competenc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9, No.1 pp. 365-384, 2015.
- [4] K. S. Lee, "Th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 on rearing attitude of the Vietnamese immigrant women with young children",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8, No.1 pp. 107-131, 2015. DOI: <https://doi.org/10.14328/mes.2015.3.31.107>
- [5] J. Y. Kim, *The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Mediation effect of stress coping strategies, marital intimacy*.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p. 34-35, 2016.
- [6] S. M. Lee, K. A. Lee,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efficacy in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y on their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7, No.3 pp. 71-105, 2010.
- [7] M. A. Kim, "The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in mothers of multi-cultural households on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Protection*, Vol.3, No.1 pp. 59-96, 2018.
- [8] M. Bowen,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Vol.4, No.1 pp. 2-90, 1976.
- [9] S. B. Han, S. H. Cho, S. M. Le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ss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8, No.2 pp. 509-528, 2016. DOI: <https://doi.org/10.23844/kjcp.2016.05.28.2.509>
- [10] B. K. Chun,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the self-reliance of femal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hrough learned helplessnes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of Korea, pp. 5-6, 2015.
- [11] W. S. Lim, "A case study of therapy of family therapy experiencing conflict due to low levels of self-differentiation with the mother at work and at

- home", *Family and Family Therapy*, Vol.16 pp. 31-48, 2008.
DOI: <https://doi.org/10.21479/kaft.2008.16.2.31>
- [12] O. S. Oh, "Influ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negative emotion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mpowerment of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20, No.1 pp. 45-65, 2014.
DOI: <https://doi.org/10.18205/kpa.2014.19.2.001>
- [13] H. A. Ahn, *Impacts of child-rearing attitude on learned helplessness with self-esteem as a medium*.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p. 17-18, 2013.
- [14] W. P. Hong,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and self-differentiation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learned helplessnes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Korea, pp. 28-31, 2013.
- [15] Park, S. H. Cho,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self-differentiation, parenting-style,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parenting str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5, No.2 pp. 537-559, 2011.
- [16] J. M. Starr, "Adolescents and resistance to schooling: A dialectic", *Youth & Society*, Vol.13, No.2 pp. 189-227, 1981.
DOI: <https://doi.org/10.1177/0044118x8101300203>
- [17] D. Baumrind,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Vol.37, No.4 pp. 887-907, 1966.
DOI: <https://doi.org/10.2307/1126611>
- [18] K. W. Kim, "The study research on the actual and policy issue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Journal of Academy Of 21century Social Welfare*, Vol.9 pp. 31-60, 2012.
- [19] K. S. Kim, "A study on the realities of child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Forum For Youth Culture*, Vol.18, No.1 pp. 58-95, 2008.
- [20] H. Y. Kim, *The relations among parent attachment, self-concept and career matur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i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pp. 6-9, 2011.
- [21] W. C. Kim, "A study on the service usage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y relationship", *Journal of Welfare Administration*, Vol.25, No.1 pp. 49-75, 2015.
- [22] S. D. Rho, K. H. Kang, "A research on the control effect of teacher's support in the course of school adapt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20, No.3 pp. 157-167, 2015.
DOI: <https://doi.org/10.9708/jksci.2015.20.3.157>
- [23] O. N.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Doctoral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p. 21-23, 2010.
- [24] J. H. Lee, *The influence of self-differentiation level on relationship 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p. 17-18, 2015.
- [25] M. E. Kerr, M. Bowen, *Family evaluation: The role of the family as an emotional unit that governs individual behavior and development*. Markham, Ontario: Penguin Books, 1988.
- [26] M. J. Kim, *Influences of self-differentiation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interpersonal problems*.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p. 13-15, 2010.
- [27] S. Y. Bae, I. S. Lee, "The influence of abandonment anxiety on marital satisfaction: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through self-differenti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9, No.5 pp. 317-336, 2018.
- [28] S. H. Cho, C. O Park, "Inquiry into parenting experiences based on Bowen's concept of self-differenti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6, No.2 pp. 139-166, 2012.
- [29] S. H. Kwon, S. Y. Kwon,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attitude and learned helplessness on computer game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13, No.4 pp. 59-69, 2008.
- [30] M. E. Seligman, "Fall into helplessness", *Psychology Today*, Vol.7, No.1 pp. 43-48, 1973.
DOI: <https://doi.org/10.1037/e400492009-003>
- [31] S. L. Lee, *An analysis on relations between elementary schoolers' learned helplessness and self-concept*.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of Korea, pp. 22-24, 2004.
- [32] N. Bargai, G. Ben-Shakhar, A. Y. Shalev,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depression in battered women: The mediating role of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22, No.5 pp. 267-275, 2007.
DOI: <https://doi.org/10.1007/s10896-007-9078-y>
- [33] C. E. Hooker, "Learned helplessness", *Social Work*, Vol.21, No.3 pp. 194-198, 1976.
- [34] D. C. Spendlove, J. R. Gavelek, V. MacMurray, "Learned helplessness and the depressed housewife", *Social Work*, Vol.26, No.6 pp. 474-479, 1981.
DOI: <https://doi.org/10.1093/sw/26.6.474>
- [35] A. K. Park, "The mediational effects of recovery resilience on child depression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22, No.5 pp. 411-428, 2018.
DOI: <https://doi.org/10.32349/ecerr.2018.10.22.5.411>
- [36] S. H. Lee, J. H. Bae,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smart-device addiction levels, and parenting style, parenting stress, and the effects of sensation seeking trait to mothers' smart-device addiction",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37, No.1 pp.

- 299-323, 2016.
DOI: <https://doi.org/10.18612/cnujes.2016.37.1.299>
- [37] Y. J. Hong, S. H. Lee, "Links among parenting stress, family cohesion and family flexibility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arenting role-sharing with father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11, No.1 pp. 105-125, 2017.
DOI: <https://doi.org/10.5718/kcep.2017.11.1.105>
- [38] Y. E. Jang,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self-efficacy,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d problem behavior in preschoolers : the role of negative emotionality in infancy", *Family and Culture*, Vol.28 pp. 1-29, 2016.
DOI: <https://doi.org/10.21478/family.28.4.201612.001>
- [39] H. Y. Lee, K. S. Kim, M. N. Lee, "The effect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on parenting styl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pp. 109-126, 2018.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8.18.109>
- [40] K. H. Kang,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employment stress.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of Korea, pp. 15-18, 2010.
- [41] E. K. Cho, H. J. Jung, "A study on self-differentiation, conflict tactics behavior,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married men and women", *J.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0, No.1 pp. 1-16, 2002.
- [42] Y. J. Kim, Y. M. Paek, "The relationships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 self - concept, and depression of normal and delinquent juvenile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Mind Science*, Vol.3, No.1 pp. 139-160, 2000.
- [43] M. Y. Ham, *The relation of the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by children to child depression*.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of Korea, pp. 41-46, 2005.
- [44] B. K. Choi, N. J. Son, "Investigation on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home environment , children's self: Evaluation and learned helplessnes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36, No.4 pp. 121-135, 1998.
- [45] J. Y. Kim,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Infa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Vol.23, No.2 pp. 91-100, 2015.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5.23.2.91>
- [46] O. H. Kim, *The effect of mother's self-differentiation on parenting stress :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p. 15-16, 2018.
- [47] J. W. Jung, J. H. Lim, A. B. Kim, "A case study on the effects of subject related art therapy on parenting stress and learned helplessness of married women", *Journal of the Child Developmental Supporting Center*, Vol.9, No.1 pp. 101-130, 2019.
DOI: <https://doi.org/10.34167/cliart.9.1.201904.101>
- [48] Y. H. Le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of mothers and depression, anxiety, and secure attachment of children*.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p. 8-10, 2011.
- [49] W. P. Hong,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and ego differentiation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learned helplessnes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Korea, pp. 26-31, 2013.
- [50] H. J. Jung, E. K. Cho, "Korean self-differentiation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Family and Family Therapy*, Vol.15 No.1 pp. 19-46, 2007.
DOI: <https://doi.org/10.21479/kaft.2007.15.1.19>
- [51] M. E. Seligman, S. F. Maier, "Failure to escape traumatic shock",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Vol.74, No.1 pp. 1-9, 1967.
DOI: <https://doi.org/10.1037/h0024514>
- [52] K. M. Shi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earned helplessness diagnosis scale*. Doctoral Thesis, Konkuk University of Korea, pp. 35-37, 1990.
- [53] R. R. Abidin,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Pediatric PSYC, 1990.
DOI: <https://doi.org/10.1037/t02445-000>
- [54] S. J. Shin,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Doctoral Thesis, Yeonsei University of Korea, pp. 36-37, 1997.
- [55] M. J. Ha, The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on self-efficacy and daily stress among school-aged children.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p. 30-34, 2008.
- [56]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 1173-1186,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57] J. Kim, J.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6, No.5 pp. 245-261, 2005.

설 염 추(Yanqiu Xue)

[정회원]



- 2003년 7월 : 중국 길림대학교(문학학사)
- 2008년 8월 : 한국 대전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어학 석사)
- 2012년 3월 : 한국 충남대학교 중어중문과 (박사수료)

- 2012년 2월 : 한국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4년 12월 ~ 2017년 12월 : 한국다문화가정위원회 회장
- 2011년 3월 ~ 2015년 2월 : 대전대학교 무역통상학과 전임교수
- 2018년 4월 ~ 현재 : 우송대학교 글로벌복수학위전공 조교수

〈관심분야〉

교육심리학, 다문화 교육, 언어학습, 학습동기